

## 중앙아시아 노동이주 문제에 관한 고찰

허성윤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과정)

### I. 서론

- 중앙아시아 노동 이주 현황

### II. 본론

- 노동 이주 송출국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 노동 이주 유입국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 III. 결론

- 중앙아시아 노동 이주에 대한 시사점

### IV. 참고문헌

## I. 서론

본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와 러시아간의 노동 이주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 이주의 중요성과 그 사회·경제적 영향, 그리고 이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역내에서의 국가 간 협력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노동 이주는 빈곤과 고용기회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주자들이 본국에 보낸 송금은 개별 가구의 경제생활에 중요한 이바지를 하였다. 중앙아시아에서 노동 이주는 경제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제로 취급됐는데, 유입국(주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이를 이용하여 송출국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려 하지만, 주요 송출국인 우즈베키스탄은 역내 회합에서 노동 이주 문제의 논의를 차단하고 있다. 이주는 현대 세계의 불가피한 현상이자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지며, 이에 따라 이주 문제는 이주를 제한하는 조치만을 통해서서는 제대로 다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과 이해가 증가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세계 전체 이주인구의 일부를 차지할 뿐이지만, 이 지역의 경제는 노동 이주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

노동 이주를 이끄는 핵심 요인은 특히 농촌 지역의 인구과잉, 일자리와 기회 부족 등이다. 소련의 붕괴와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전례 없는 인구이동을 수반했는데, 실업과 빈곤의 증가, 국경의 확장, 정치적 불안정과 군사적 충돌 등을 반영하여 많은 인구가 구소련을 벗어나 역외로 이주했을 뿐만 아니라 역내의 다른 국가로도 이동하였다.<sup>1)</sup>

## II. 본론

중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노동이주의 대부분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노동이 남아도는 자원빈국에서 노동공급이 부족한 자원부국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 노동이주의 주요 송출국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타지키스탄이며 주요 목적지 국가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유출 노동이주는 그 규모와 중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결정자나 국제기구로부터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비공식 채널을 이용하여 외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숫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정보를 비롯하여 노동이주에 관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이주자의 절대적인 수치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대 규모라는 데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 간에 이견이 없다.<sup>2)</sup>

중앙아시아 내 6,000만 거주 인구 중 거의 절반이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압도적으로 많은 농촌 인구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통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주자 송출국이 되었다. 각종 추정에 따르면 200만 명에서 800만 명에 이르는 우즈베크 국민이 외국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자료를 보면, 여전히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의 숫자는 30~40만 명에 불과하다. 우즈베키스탄의 이주자 인구는 절대적인 수치에서 중앙아시아 최대이다. 200만 명을 넘는 이주자들이 우즈베키스탄을 떠나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한국, 미국, 유럽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이주자는 연간 13억 달러 이상을 고국에 송금하고 있는데, 이는 우즈베키스탄 GDP의 8%에 해당한다. 우즈베키스탄 이주자들의 실제 숫자와 송금액의 실제 규모는 공식 자료에서 보고되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즈베키스탄 이주자 중 거의 60%가 러시아에서 일하는데,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 카자흐인, 아제르바이잔인과 더불어 주요 이주자 커뮤니티의 하나를 형성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 내의 각종 기구보다 러시아의 법집행기구, NGO 파트너들과 훨씬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즈베크 정부가 자국과 카자흐스탄 사이에 이주 관련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우즈베크 시민은 카자흐스탄에서 벌어지는 성적 착취와 노동착취의 가장 빈번한 희생자가 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경찰이 알마티를 비롯한 여타 대도시에서 인신매매를 비호하는 데 종종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티크볼리 아블로드는 우즈베크의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지 못했다. 이 NGO 조직이 희생자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조차도 알마티 경찰은 협력하기를 거부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국내외 인신매매 비율은 노동 이주와 더불어 역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즈베크 정부는 이주 문제와 관련한 역내 대화채널 구축에 계속 주저하고 있다. 다수의 국내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이 이주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국제적 평판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이주에 관한 협력은 러시아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즈베크 정부는 중동 프로그램(Middle Eastern programs)과 지속적인 연락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우즈베크 이주자들의 가장 큰 유입국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sup>3)</sup>

다른 체제전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노동이주는 1990년 중반 이래 일자리를 찾지 못한 대다수 지방 주민이 돈을 버는 주요 방법 중 하나였다. 비공식 채널을 통한 러시

1) 김영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슬라브 연구> 28권1호 (2012), p.1 참조 및 인용

2) 김영진,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이주와 송금: 현황과 사회경제적 영향' 러시아 연구 제 22호 제 2권 p. 1 인용

3) 위의 논문 p. 200 인용

아와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가 노동이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식 통계는 이주에 관한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 및 UAE와는 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송출하는 공식적 협정을 체결했지만, 이러한 협정이 노동이주에 대한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노동이주가 송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노동이주는 생산 잠재력의 상당한 손실을 의미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금의 유입을 의미한다. 노동이주는 이주노동 유입국에 대해서는 현지 인구에 실업과 일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동시에 부가가치의 창출에 기여하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한다.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이주 관련 문제를 검토하면, 노동이주(대부분이 비공식 이주)는 광범한 실업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긴장을 감소시켰으며, 이주자가 보낸 송금은 그 가족의 소비능력 증가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sup>4)</sup>

이주과정은 이주자와 그 가족, 그리고 송출국과 유입국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모두를 갖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주노동자로부터의 화폐송금액은 특히 2000년 이후에 증가했는데, 이는 경제의 일부 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은행업 분야의 화폐이전서비스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둘째로는 주택, 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주와 개발에 관한 문헌에서 중요한 의문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거나 충분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이주와 관련된 중요한 의문은 이주가 특정한 유형의 개발로 이끄는지 여부가 아니라, 왜 이주가 어떤 송출지역에서는 더욱 긍정적인 개발성고를 보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성과를 보이는가 하는 것이다(Taylor 1999; Jones 1998, p. 579).<sup>5)</sup>

소비에트 시기 동안 우즈베키스탄은 전 연방 구성공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유출이주 비율을 가진 공화국 중 하나였다. 동 국가는 어떤 면에서 이주자들의 목적지였는데, 주로 러시아로부터 이주자들이 유입되었다. 이 유입이주는 우즈베키스탄에 러시아어 사용인구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대부분 이슬람을 신봉하는 토착인구의 사회·문화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우즈베크 민족과 여타 중앙아시아 민족들에게 러시아어 사용이 확대되었고 러시아적인 생활양식과 습관이 스며들었다. 이 사회문화적 과정을 통해 러시아어를 의사소통과 교육 및 사회생활의 주요 언어로 삼는 우즈베크인이 등장하였다. 이 과정은 식민지 알제리와 인도에서 일어난 상황과 대단히 유사하다(A. Ilkhamov 2006, pp. 2-3). 이와 같은 우즈베키스탄의 지리적 비이동성의 경향은 소련 해체 이후에도 강하게 남아 있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우즈베키스탄은 주로 내전의 참화로부터 도망 나온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출신 난민들의 목적지 국가로 계속 남아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이러한 상황은 극적으로 변화했다. 생활수준이 끊임없이 하락함에 따라 우즈베크인은 러시아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타지크인과 키르기스인의 경로를 따르기 시작했다. 수세기에 걸쳐 정주민족 혹은 준 정주민족의 생활양식을 영위해왔던 우즈베크인은 이제 외국(주로 러시아)을 전전하면서 일자리를 찾는 일종의 ‘유목생활’로 전환한 것이다.

4) 김영진,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이주와 송금: 현황과 사회경제적 영향’ 러시아 연구 제 22호 제 2권 p. 200 인용

5) 김영진(한양대),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이주와 송금: 빈곤축소와 경제발전에 대한 영향’ 논문 p. 332 인용

〈표 1〉목적지 국가별 유출이주의 구조(2004년)<sup>6)</sup>

국가	%
러시아	64.0
카자흐스탄	28.1
한국	5.2
터키	1.4
유럽	0.7
OAE	0.4
기타	0.2

자료 : Valentina Chupik, NGO 'Tong Jahoni'. Uzbekistan, 2005.

중앙아시아의 소국 키르기스스탄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으로의 노동이주가 지속되어왔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 특히 러시아로의 노동이주가 급증하였다. 2003-2008년 사이에 나타난 가구 소비의 증가와 빈곤의 감소는 상당 부분이 외국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키르기스인들이 키르기스스탄의 가족들 에게 외화를 송금한 덕분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키르기스 노동 이민자들이 주로 이주하는 나라는 러시아인데 여러 관련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진 바로는 키르기스스탄 국외로 노동이민을 떠나는 노동자의 80%가 러시아에 있는 직장에 고용되어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으로 송금되는 외화의 80%가 러시아의 키르기스인 노동자들이 보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송금 경제의 특성으로 러시아 경제의 불황이나 호황여부는 직접적으로 이주 키르기스인들의 고용기회 감소 또는 증대, 임금 수준, 이주 키르기스인들의 사회복지에 영향을 주며, 이는 결국 키르기스스탄의 사회경제 상황에 변화를 주기도 했다. 키르기스인들의 러시아 이주는 소련시기부터 이어져왔던 현상이었는데, 이 당시는 소련국민 자격으로 러시아공화국에서 일하게 되거나 유학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노동이주가 시작된 것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관련된 건축에 키르기스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면서부터였다. 아울러 러시아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키르기스인들이 러시아에 남아 고용되기도 했고, 소련 연방정부 기구에 공무원으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었던 키르기스인들도 있었다. 이들은 러시아에서 살면서도 키르기스스탄의 친척들과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였고, 이러한 연계는 키르기스스탄 독립 이후 키르기스인들의 노동이주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소련 붕괴이후 러시아의 저임금 노동인력 시장에서 두드러진 증가가 이루어진 집단은 타지크인과 우즈베크인이었는데, 최근에 이는 키르기스인으로 대체되었다. 러시아 연방이민청(FMS)에 의하면 러시아 저임금 노동인력시장에서 키르기스스탄은 5번째로 많은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는 국가이다. 2009년에는 55만 명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러시아 경제위기가 심화되었던 2008년은 31만8천여 명의 키르기스 노동인력들이 유입되어 실제 노동허가는 절반이 조금 넘는 18만3천여 명에게만 발급되었고, 나머지는 이른바 3개월의 단기체류 기한을 넘겨 불법체류 노동인력의 신분으로 전락되었다. 같은 시기 키르기스스탄 외무부는 최소 29만 명 이상의 키르기스인들이 러시아에서 고용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반면 키르기스스탄 정부부처인 키르기스 노동, 고용

6) 김영진(한양대),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이주와 송금: 빈곤축소와 경제발전에 대한 영향’ 〈표 2〉 재인용

및 이민부(SCME)는 25만여 명에서 35만여 명의 키르기스인 노동력이 러시아 산업시설, 건설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sup>7)</sup>

키르기스스탄 출신 이주자는 50~100만 명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식 자료는 키르기스스탄 전체 인구의 11.7%에 해당하는 60만 명의 이주자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터키, 미국, 발트 해 연안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타지키스탄과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송금에 의존하는 경제가 되었다. 2001년에 송금액은 GDP의 1.9%를 차지했을 뿐이지만, 2008년에 그 비율은 20%를 넘어섰다. 지하경제와 송금액을 합치면 2008년에는 송금액이 GDP의 50~60%를 차지했다. 같은 시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GDP의 3.7%를 맴돌았을 뿐이다. 국제이주기구(IOM) 비슈케크 사무소의 보고를 따르면, 약 30만 명의 키르기스 이주자들이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고, 그중에서 16만 명은 이미 러시아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나 나머지 14만 명의 이주자들은 강제추방당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있다. 키르기스스탄의 이주노동자들은 계절적으로 이동하며 겨울에 고향으로 돌아온다. 러시아와 키르기스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스 이주자 대부분은 정식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키르기스 정부는 자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능력이 없으며, 사실상 인적자원을 외국에 팔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에서 송금되는 금액은 GDP의 20~30%에 해당한다. 이주 덕분에 얻는 또 다른 이득은 실업자가 외국으로 빠져나감으로써 국내의 긴장을 축소시킨다는 점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2006년 키르기스스탄 가구 중 16% 이상이 송금을 받았다. 연평균 송금소득은 가구 당 1,331달러였는데, 월평균 국내소득은 약 400달러이다. 타지키스탄과 비슷하게 대부분의 송금은 소비재 구입에 지출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이주해 노동하는 키르기스스탄 노동자들 대부분 귀국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키르기스스탄 국민들 중 44%는 러시아, 33%는 카자흐스탄에 이주해 장기적인 노동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기적 해외이주노동을 원하는 국민들 중에서 18%는 러시아, 8%는 카자흐스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국한 해외이주 노동자의 1/5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재이주 노동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귀국한 노동자 중에서 6%는 러시아, 9%는 카자흐스탄으로 재이주 노동을 희망하며, 동 국가에 거주를 희망한다고 한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이주노동자의 귀국은 새로운 역량과 이민의 국가에서 취득한 기술을 가진 전문가의 국가에 도착하기 때문에 국가의 인적 자본의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키르기스스탄 산업의 생산성 감소와 경제성장의 지체를 가져오며 숙련 노동인력 유출로 제조업 등 산업생산성 감소로 산업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sup>8)</sup>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머물고 있는 타지키스탄 이주자들이 2007년에 18억 달러 이상을 송금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금액은 고국에서 400만 명의 타지키스탄 국민이 버는 소득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큰 액수이다. 타지크 정부는 통상 40~50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거의 80만 명의 타지크 이주자들(타

7) 김상철(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러시아의 외국인 노동자고용과 키르기스인 러시아 노동이주’ 전문가 칼럼\_20130214, p. 1~3 인용  
 8) 강명구 (산업은행 조사분석부 연구위원), ‘키르기스스탄 노동자의 해외이주 원인, 귀국, 그리고 득과失’ 주간이슈 분석\_20130903, p. 1~2 인용

지키스탄 전체 인구의 거의 12%)이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일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의 보고서를 보면, 타지크 이주자들의 90% 정도가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IOM은 1994년 타지키스탄에 조사단을 설치하고 타지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임무를 수행해 왔다. 타지키스탄에서 이주자 비율은 남성 인구의 30~50%에 이른다.<sup>9)</sup>

카자흐스탄은 2000년대 중반 이래 중앙아시아 이주자들에게 인기 있는 새로운 목적지가 되었다. 카자흐스탄의 월평균 임금은 러시아보다 낮지만, 카자흐 정부는 더욱 쉬운 현지화 절차를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는 주로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다. 첫째, 우즈베키스탄의 생활수준 하락과 비즈니스 활동의 제약과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가진 상대적으로 더욱 나은 기회이다. 둘째, 이웃국가에 살고 있는 친척 간의 유대관계 때문인데, 키르기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및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하는 안디잔(Andijan), 페르가나(Ferghana), 수르한다라(Surhandarya), 호레스름(Khoresm), 그리고 타슈켄트 주 등의 국경 주변에 우즈베크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셋째,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국경통과시 비자면제제도이다. 역내 이주의 주요 루트는 다음과 같다. 점점 많은 수의 이주자들이 카자흐스탄, 특히 남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는 이주자들은 네 집단으로 뚜렷이 나누어진다. 첫 번째 범주의 이주자들은 카자흐스탄에 영구 이주하여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카라칼팍스탄(Karakalpakstan) 출신의 카자흐 소수민족으로, 공식 통계에 따르면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약 5만 명의 카자흐 인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였는데, 이들 이주자의 75%가 카라칼팍스탄 출신이었다. 비공식 자료원에 따르면, 재정착민의 숫자는 18만 명에 달한다(Д. Кадырова 2002).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카자흐 민족의 이탈은 아랄해 유역의 인적 재앙, 카자흐스탄의 더 높은 생활수준, 그리고 카자흐 정부가 오랄만인(*ralmans*: 카자흐 소수민족 출신 재정착자)에게 급부금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실 등으로 인해 촉진되었다.<sup>10)</sup>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카자흐로의 대이동은 카라칼팍스탄의 민족구성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두 번째 범주는 일자리를 찾아 카자흐-우즈베크 국경을 넘는 농촌의 우즈베크 이주노동자로 대부분 러시아로 떠나는 이주자들과 유사한 범주의 노동 특성을 갖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의 추피크(V. Chupik)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주요 주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중 31%는 건설분야에, 31.9%는 시장노점(*bazaars*)에, 8.9%는 농업부문(종종 개인농이 소유한 면화농장)에, 나머지는 서비스분야에 고용되어 있었다(IOM 2006). 2005년 초반에 2천명의 이주노동자들만이 남부 카자흐스탄의 지방당국에 등록되었을 뿐, 더욱 많은 숫자는 미등록 상태에 있었다.

세 번째 범주는 카자흐 대학에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로 그들은 거기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 고 부패현상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네 번째 범주는 정치적 이주자와 난민으로 구성되는 이주자 집단으로 이들의 숫자는 안디잔 사태 이후에 증가했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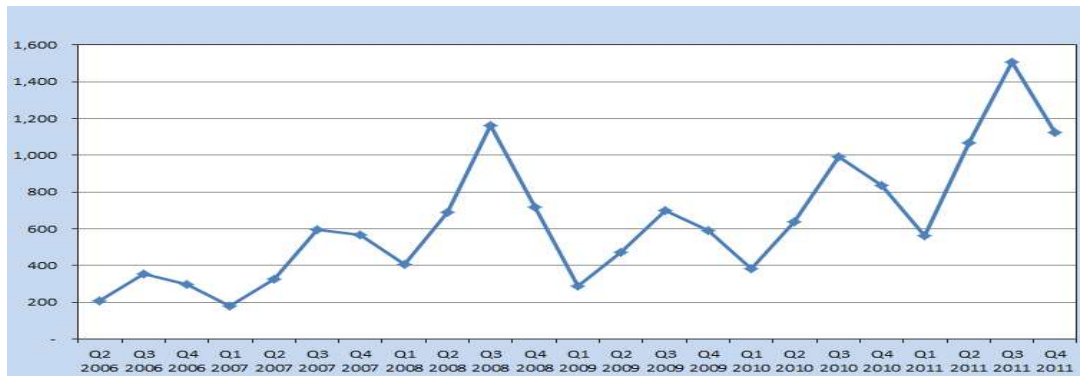
9) 김영진,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이주와 송금: 현황과 사회경제적 영향' 러시아 연구 제 22호 제 2권, p. 220 인용

10) 이러한 급부금에는 카자흐스탄으로의 운임에 대한 재정지원, 현금수당, 주택구입에 대한 신용이 포함된다.

11) 김영진(한양대),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이주와 송금: 빈곤축소와 경제발전에 대한 영향' 논문, p. 340 인용

금융/현금 이전으로서의 송금은 공식적·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합법적 이주노동자와 불법적 이주자들에 의해 노동 유입국에서 송출국으로 보내진다. 송금은 현재 송출국의 국가경제 및 지방 경제를 지탱하는 데, 특히 빈곤축소와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의 크기가 현저하게 확대되어 왔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즈베키스탄과 주요 이주자 유입국(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간의 금융이전 채널은 크게 ‘공식적’채널과 ‘비공식적’채널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공식적 채널로는 은행이나 송금대행사(MTOs: Money Transfer Operators)를 이용한다. 비공식적 채널로는 친구, 친척, “하왈라(hawala)”와 같은 방법이나 인터넷 기반의 전자계정을 통한 거래방법을 이용하고 돈을 직접 소지하고 돌아오기도 한다. 상당히 많은 불법적 송금은 이주자 자신이나 대리인에 의해 현금의 형태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빠져나온다. 국내의 사회공동체 내부에서는 아주 최근까지도 친척이나 친지, 열차 차장, 배달 서비스를 통해 돈을 이전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다. 그러나 각종 연구와 조사는 비공식적 채널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 Muradova and J.Kakharov 2009). 2008년 송금시스템과 우편서비스를 통한 러시아의 송금액은 137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송금의 대부분은 구소련의 공화국으로 보내졌다. 송금의 주요 수취국가는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및 우크라이나로서, 각각 약 30억 달러, 26억 6,000만 달러, 19억 달러를 수취했다.<sup>12)</sup> 그렇지만,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러시아 중앙은행을 인용하여 우즈베키스탄으로 33억 달러가 이전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이주목적지 국가에서 전반적인 소비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고, 이는 송금액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2008년의 이전금액은 2007년에 비해 78% 증가하였지만, 2009년 제1분기에는 2008년 제4분기에 비해 2.5배나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계절성 요인을 고려하여(우즈베크 이주자의 대다수는 겨울이 시작할 때 고향으로 돌아와서 봄에 러시아로 일하러 돌아간다), 2008년 제1분기와 비교하더라도 여전히 하락폭은 30%나 된다. 평균이전금액 또한 이 시기 동안 감소하여 2009년 제1분기에 497달러를 기록했다.

〈그림 1〉 MTO를 통한 러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의 분기별 송금 (단위: 백만 달러)<sup>13)</sup>



자료: Central Bank of Russia, <http://www.cbr.ru/>

12) 러시아중앙은행(Central Bank of Russia)의 데이터.

13) 김영진(한양대),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이주와 송금: 빈곤축소와 경제발전에 대한 영향’ 〈그림 1〉 재인용

최근 수년에 걸쳐 러시아에서는 관세가 크게 인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폐이전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되었다. 대개 러시아에서 국내 및 해외로의 이전에 대한 절차는 동일하다. 자금을 보내는 사람은 여권이나 기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성과 이름, 금액, 통화, 수취인이 돈을 받기 편리한 국가 및 도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흔히송금대행사에서 보내는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이주자는 또한 이민카드와 임시등록증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다. 보내는 사람은 화폐이전의 추적번호를 포함하는 송금문서 사본을 받는 데, 이는 수취인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는 데 필요하다. 대부분의 송금대행사는 추적번호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송상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보내는 사람도 이전상태를 추적할 수 있다.

〈그림 2〉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평균 송금액 (단위: 달러)<sup>14)</sup>



자료: Central Bank of Russia, <http://www.cbr.ru/>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송금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은 2008년 우즈베키스탄으로의 평균송금액(760달러)은 키르기스스탄(522달러)과 타지키스탄(645달러)의 평균금액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아마도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송금이 종종 통합되어 보내진다는 사실에 기인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의 저축을 합쳐서 한 사람에게 보내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 금액을 여러 수혜자들에게 분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 초에는 보낸 사람(송금인) 당 수취인의 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불법’수준의 감소를 가리킨다(РусСлавБанк 2009). 다시 말해, 위기와 일자리 감소는 주로 불법 이주자에게 타격을 주어 그들 중 상당수가 고향으로 돌아갔다. 반면에, 합법적 이주자의 대부분은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고 러시아에서 계

14) 김영진(한양대),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이주와 송금: 빈곤축소와 경제발전에 대한 영향’ 〈그림 2〉 재인용



속 일했던 것이다.<sup>15)</sup>

2007년의 시점에 25만 명의 우즈베크인과 22만 명 이상의 키르기스인, 그리고 5만 명의 타지크인은 카자흐스탄에서 일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1만 달러를 넘지 않는 금액은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할 수 있고 은행계정을 개설하지 않은 채 유선으로 송금할 수도 있다. 유선전송시스템 수의 증가는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촉진하고 전송수수료를 낮추고 있다. 전문화된 국제유선시스템 간에 요금은 전반적으로 표준화(평균 2-4%이고 송금액에 따라 높아짐)되어 있고 송금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10-15분에서 3-24시간의 범위에 있다(E. Sadovskaya 2006, pp. 112-113).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크스탄에는 신규채용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에 필요한 노동자를 채용할 뿐만 아니라 송금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콘니코프(A. Иконников 2008)에 따르면, 1999-2007년의 동안 카자흐스탄에서 일한 이주노동자 가운데 우즈베크인이 57.6%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2>의 공식 통계는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크스탄으로 보내진 송금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우즈베크 이주자들이 주로 비공식적인 채널을 선택하여 자신들의 수입을 고향에 가져간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크스탄으로의 송금 (단위: 백만 달러)<sup>16)</sup>**

	2006년	2007년	2008년
송금액(백만달러)	1.62	2.78	2.22

자료 : National Bank of Kazakhstan (2008).

중앙아시아 경제전략연구소의 쿠르마노바(A. Kurmanova) 소장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한 송금총액은 2007년에 30억 달러에 달했다. 2007년에 시작된 카자흐스탄의 건설 및 금융 위기로 인해 송금총액은 22억 달러로 감소했다. 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 비공식적 송금액은 전체 송금총액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무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같은 인접국의 경우, 송금총액에서 비공식적 송금의 비중은 현저하게 더 높을 수 있다.<sup>17)</sup>

카자흐스탄의 노동이주정책은 다자간 및 양자간 협력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카자흐스탄은 독립국가연합(CIS)을 비롯해 유로아시아 경제공동체 (Euro-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 중앙아시아 경제공동체 (Central Asian Economic Community), 상하이협력기구 (Shanghai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등 다자간 협력 틀 속에서 소속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한편으로 카자흐스탄은 양자협력을 통해 노동이주를 규제하는 것 역시 중요시한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해 다른 이웃 국가들과 이주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국민의 해외 고용과 관련해 몰도바와 아제르바이잔을 포함

15) 위의 논문, p. 343~345 인용

16) 김영진(한양대), ‘우즈베크스탄의 노동이주와 송금: 빈곤축소와 경제발전에 대한 영향’ <표 7> 재인용

17) 위의 논문 p. 345~346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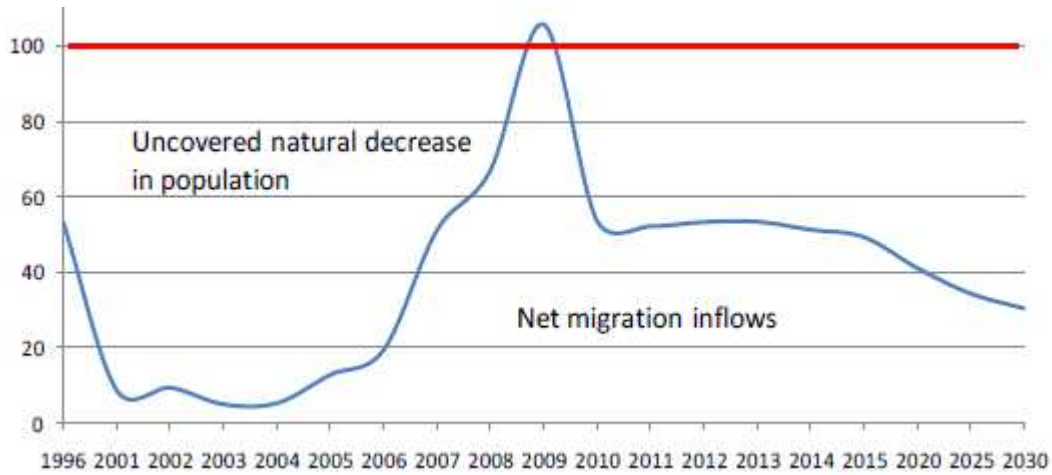
몇몇 국가들과 양자간 협정을 체결했다. 이들 협정은 보통 양국간 이주를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 저개발국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수준이 높은 카자흐스탄으로의 일방적인 노동 이주만을 다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금까지 관심의 초점은 노동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자흐스탄에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오는데 맞춰졌다. 이러한 목적으로 정부는 외국 인력을 카자흐스탄으로 불러오기 위해 매년 도입인력쿼타를 정해왔다. 카자흐스탄의 경제, 사회 안정이라는 목표 하에 이러한 쿼타 시스템은 정당화된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간주되고,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목적국으로 카자흐스탄을 선택한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에서 국외로의 이주자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고급 전문인력들이다. 이러한 두뇌유출현상은 카자흐스탄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이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고용프로그램 (Programme for Employment of Population of Kazakhstan)은 2005년에서 2007년 동안 실업률을 줄이고, 국내 노동 시장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고, 국내 인력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 이행될 계획이다. 하지만 동 프로그램에 카자흐스탄 인력수출과 이주일반에 관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단지 “정부 기관과 비정부 기관, 노동조합, 민간송출기관간의 협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만 권고하고 있다.<sup>18)</sup>

러시아는 주요 인간 이주회랑의 한 부분으로, 이주자의 주요 공급원이면서 이주 목적지인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를 연결시킨다. 이 회랑은 멕시코-미국 루트의 뒤를 이으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주회랑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이 지역 최대의 송금 유출국으로 2009년 261억 달러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미국에서 유출된 483억 달러와 비교되었다. 2000년대 내내 이주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공개적으로 외국인들을 경제적 위협으로 묘사했다. 예를 들면, 불법 노동자들이 80억 달러의 조세수입 상실에 책임이 있다는 식이었다. 2008년 12월 푸틴은 법적으로 등록된 총 390만 명 중에서 50%까지 이주 쿼터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인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해 1993년 1억 5천만 명으로 정점에 이르다가 다시 감소추세로 접어들면서 현재 1억 4천 200만 명에 달한다. 러시아는 평균적으로 매년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대략 7.7%정도 앞서있으며, 인구감소 원인으로는 높은 사망률, 낮은 출생률, 노령인구, 노동인구 층의 급감 등을 들 수 있다. UN은 러시아 인구가 2020년에는 1억 3천 5백만 명으로, 2050년에는 1억 2천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부터 러시아로 이민을 오는 인구수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이주 노동자 수가 2002년 36만 명에서 2008년 200만 명으로 5배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러시아의 인구감소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추세이다. 특히 이주노동인구는 2006년 이후 인구자연감소분을 상쇄해 오고 있으며,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이주인구 유입량이 현재 추이대로 진행된다면 <그림 3>처럼 내년에는 인구자연감소분의 50% 정도를 충당할 것으로 전망된다.<sup>19)</sup>

18) IOM 국제이주기구, ‘6개 송출국가 노동이주 관리체계 및 운영 조사보고서: 방글라데시, 이란, 카자흐스탄, 미얀마, 네팔, 우크라이나’ 2006, p. 70~71 인용

19) 전재훈, ‘러시아로의 노동이주 현상과 이주문제 해결방안 모색’ 논문 p. 112~113 인용

〈그림 3〉 해외이주인구의 인구자연감소 대체비율<sup>20)</sup>



출처: 러시아 통계청

중앙아시아로부터 온 해외이주민이 러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도착 후 3일 이내에 거주등록을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데는 적어도 30일 이상이 걸린다. 또한 그 전에 출입국심사나 세관통과 시 뇌물을 주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으며, 국경을 넘은 이후에도 도심지역으로 들어갈 때 다시금 부정부패가 이루어진다. 심지어 고국으로 돌아갈 때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된다고 하니 합법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최대 노동력 유입국인 러시아로 들어오는 해외이주 유입량은 공식통계로는 잘 잡히지 않지만,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이주노동자 수가 2002년 36만 명에서 2008년 200만 명으로 대략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우즈베키스탄에서 들어오는 노동자 유입량(합법/비정규)만 추산해도 100만 명(합법 이주노동자 한 명당 9명의 비정규 이주노동자<sup>21)</sup>로 추정)이 넘는 것으로 계산된다.

〈표 3〉 러시아로 유입되는 이주노동자 수 (단위: 천 명)<sup>22)</sup>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인구 수	213.3	283.7	359.5	377.9	460.4	702.5	1,014.0	1,717.1	2,157.0
CIS	106.4	148.6	204.6	186.5	221.2	343.7	537.7	1,152.8	1,596.0
비CIS	106.9	135.1	154.96	197.4	238.5	353.8	476.3	563.8	560.4

출처: 러시아 통계청

20) 위의 논문 〈그림 1〉 재인용

21) 비정규 노동자들은 CIS국가 간 비자면세제도 등을 통해 들어온 이주노동자들로서 정식적인 노동 허가나 거주등록 없이 체류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22) 전재훈, ‘러시아로의 노동이주 현상과 이주문제 해결방안 모색’, 〈표 1〉 재인용

러시아로 들어오는 해외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건설업과 소매업과 같은 비교역부문에서 고용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건설업부문은 현재 많은 러시아 건설기업들이 노동력 부족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동력 공백을 외국인 노동자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점원, 관리인, 웨이터, 청소부, 요리사 등과 같은 직종을 구하러 다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반면, 러시아인들은 취직에 대한 어려움과 실업문제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면서도 이러한 소위 '3D'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해외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3분의 1은 무역상, 나머지는 자원탐사현장이나 농업부문, 교육 및 의료 등과 같은 전문직에서 일하고 있다.

〈표 4〉러시아의 직종별 고용변화 추이 (단위: 천 명, 2004-2008)<sup>23)</sup>

	2004	2005	2006	2007	2008
교역부문	-538	-342	-387	-211	-426
제조업	-145	-281	-147	9	-177
비교역부문	966	727	769	1,056	881
건설업	188	173	157	201	200
소매업	381	245	229	396	307
순차이	428	385	382	845	455

출처: 러시아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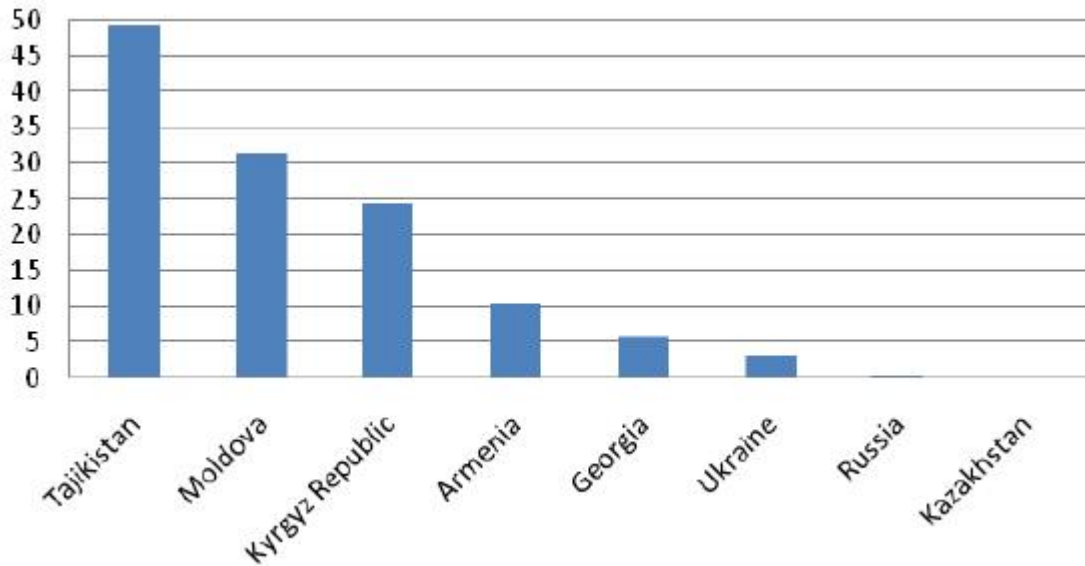
러시아인들의 3D업종 기피현상을 분석해보면, 경제성장 이후 고학력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질적 변화가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난다. 이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교육기회 확대, 학습기간 연장 등에 비례하여 신규로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기간이 과거보다 늦어지고 업무환경이나 임금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농업과 건설부문에서 노동력 부족문제가 가장 먼저 심각하게 나타났고 결국엔 3D 기피현상으로까지 심화되었다. 동시에 중앙아시아 해외노동자들은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없는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이를 선점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점차 쇠약해져 가는 노동시장에서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들만의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해외노동자들은 3D업종과 같은 비인기 업종으로 몰리고 있으며, 이들은 앞으로의 취업경쟁자가 현지인들이 아닌 자신들과 처지가 비슷한 다른 해외노동자가 될 것임을 감지하고 있다.<sup>24)</sup>

러시아로의 해외노동자 이주는 2000년대 들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한편, 세수면에서 불법 노동자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매년 100억 달러 상당의 자국 통화가 해외송금으로 유출되는 까닭에 러시아정부는 여전히 해외노동자들을 자국 경제에 해를 끼치는 위협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23) 위의 논문 〈표 2〉 재인용

24) 전재훈, '러시아로의 노동이주 현상과 이주문제 해결방안 모색', p. 114-116 인용

〈그림 4〉CIS국가별 GDP대비 해외송금 비율비교 (GDP대비 송금액%, 2008)<sup>25)</sup>



출처: 세계은행

중앙아시아에서의 이주노동문제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에서 2004년 무렵이었다. 그 때까지 수십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은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을 돌아다니며 벌어들인 막대한 양의 금액을 고향으로 송금하였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이주노동자 송금을 자국투자로 유인하고 자국통화의 유출을 억제할 수 있었던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주문제를 기회 요인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치부했다. 심각한 것은 러시아의 인구부족현상에 대한 우려가 외국인에 대한 기피나 혐오, 공포증 등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들과 맞물려 인종차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인들은 현재의 인구감소로 외국인들이 더 유입되게 되면 러시아의 정체성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인구 대다수가 비러시아인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게 이미 신문기사로 보도된 바 있다.<sup>26)</sup> 따라서 해외 노동자들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범죄와 부정행위들이 러시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정을 조성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이들이 저지른 범죄 기사 보도를 외국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조장하기 위한 정부 및 현지 언론들의 의도적인 탄압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결국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들이 실업이나 추방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게끔 법적 제도를 마련해서 범죄율을 줄이는 것이다. 경제성장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 이주정책은 불법 노동이주 증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였다. 노동이주의 경우 쿼터조정과 노동허가 발급 및 시민권 획득절차의 강화, 불법이주 방지를 위한 송출국과의 협력강화와 불법이주자들의 경제활동 제한, 불법이주자 고용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의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00년 이후 불법이주 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불법송금 및 탈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25) 위의 논문 〈그림 2〉 재인용

26) Andrey Vaganov, "Migrants Revenge", Nezavisimaya gazeta, October 25, 2006

통제기능을 강화시킨 것으로, 그밖에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둘러싼 송출국과의 외교적 마찰, 급진세력 유입으로 인한 테러 발생 등의 우려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FMS의 업무가 내무부로 이관되었으며, 2002년 5월 FMS의 기능이 내무부의 한 과로 분리되었다. 이후 2004년부터 외국인 등록과 비자통제업무가 FMS로 이관되어 FMS는 1990년대 초반 재외동포 등의 이주를 지원하던 업무에서 서구식 이주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즉, 현재 노동이주와 관련하여 러시아 이주정책의 주요 관심은 경제이주, 특히 불법이주의 규제에 대한 부분으로서 2007년 1월에 발효된 ‘러시아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Law On Legal Position of Foreign Citizens in the Russian Federation)에 따르면, 러시아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된 CIS국가에서 유입된 불법이주자에 대해 사면과 함께 취업허가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외국인의 소매업을 금지하였다. 앞서 언급했듯 2008년 러시아 정부는 앞으로 해외이주민들에 대한 쿼터를 50%로 제한할 것이며, 이는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불가피한 대책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이주민 비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언급된 해외이주민 수는 3백9십만 명으로 이는 정부공식자료로서 미등록된 인원수까지 포함하면 러시아에 거주하는 해외이주민은 실질적으로 천2백만 명 가량 된다. 이처럼 러시아가 해외노동자들에 대한 쿼터를 줄이려는 이유는 바로 자국민들의 고용문제와 연관이 있다. 즉, 러시아로 유입된 불법노동자들은 업무환경이나 의료 등에 관한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동시에, 그러한 법적 제재에 구애 받지 않은 채 돈만 벌 수 있다면 싼 값에 초과근무를 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은 불법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자국민을 해고하고 불법노동자를 고용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한다.<sup>27)</sup> 이에 따라 러시아로의 노동이주를 위해서는 러시아내 법적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용주의 고용확인서, 선 지불된 여행경비나 목적지까지의 항공권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가 노동력 부족 현상을 정착형이 아닌 수요주도형 순환이주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sup>28)</sup>

2013년 초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러시아가 노동자들의 입지와 여건이 개선된 노동시장 창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러시아로 유입되고 있는 저임금 미숙련 노동인력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러시아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하고 러시아의 문화와 전통을 모르는 경우 결국 갈등을 유발하고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현재 1천만 명에 달하는 노동이민자들 가운데 합법적인 체결자격을 획득한 경우는 2백만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앞으로 취업하려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러시아어 자격시험 제도를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러시아 정부의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러시아로 다수 노동인력을 진출시킨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러시아어가 국가공식어로 사용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이 러시아 노동인력 조달시장의 최대 수혜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29)</sup>

27) “Gastarbaiters Will not have Jobs in 2009?”, Pervouralska.net, January 5, 2009

28) 전재훈, ‘러시아로의 노동이주 현상과 이주문제 해결방안 모색’ 논문, p. 118~121 참조 및 인용

29) 김상철(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러시아의 외국인 노동자고용과 키르기스인 러시아

### Ⅲ. 결론

지난 십여 년에 걸쳐 구소련 지역은 세계의 주요 인간이주 지역 중 하나로 전환되었다.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은 2000년대에 들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고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을 받기 전인 2008년에 정점에 이르렀다. 노동 이주는 중앙아시아 국가 간 통합을 촉진하는 잠재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각국의 공식적인 대응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노동 이주의 송출국과 유입국은 모두 이주 문제에 협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주의 이익을 경시하고 이주자들의 삶을 힘겹게 만들었다. 앞서 언급했듯 유입국(주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이주자들을 이용하여 송출국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려 하지만, 주요 송출국인 우즈베키스탄은 역내 회합에서 노동 이주 문제의 논의를 일상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동 이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각국은 개별 국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노동 이주 송출국과 유입국 간의 협력도 필요하다. 우선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이주자의 송금을 투자로 전환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주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소기업에 장려함으로써 송금을 투자로 전환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 대신 송금은 소비에 지출되거나 부동산과 같은 특정 재화의 가격을 팽창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주자 송출국 정부들은 송금을 중소기업에 투자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입국들은 송출국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결정을 취하는 것을 선호한다. 마찬가지로 이주자 송출국 대부분은 대규모 귀환 노동자들의 유입이 가져올 잠재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이후 중앙아시아 이주자들은 해외에서 소득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주자 1인당 송금액은 계속 하락하겠지만, 더욱더 많은 이주자가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나감에 따라 송금액의 전체적인 크기는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국가의 중요한 과제는 사회와의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이주의 성과 특히 송금을 이용하여 전반적인 경제발전의 성공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노동이주는 노동이주 과정과 개발이슈에 관련되어 있는 정부를 비롯한 여타 이해당사자에게 계속하여 중요한 정책대상이자 정책우선순위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이주의 잠재력을 우즈베키스탄 내의 개인과 사회공동체 및 국가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향후의 지속적인 과제로 남을 것이다.

지난 10년 간 중앙아시아에서는 이주민 관리시스템 구축과 이주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끊임없이 모색되어 왔으나 추진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미래에서 이주민 노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수용하고 올바르게 정립하여 지역적 협력 수준에서 상호 합의된 장기적인 관점이 요구되고 있다. 동시에 이주민 문제에 대한 문제 인식과 지속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주민 노동 환경을 보완하고 수백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 또한 이주민 노동에 의존하는 각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sup>30)</sup>

노동이주' 전문가칼럼\_20130214, p. 4 인용  
30) 전재훈, '러시아로의 노동이주 현상과 이주문제 해결방안 모색' 논문, p. 125 인용

<참고문헌>

김영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슬라브 연구> 28권1호 (2012)

김영진,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이주와 송금: 현황과 사회경제적 영향’ 러시아 연구 제 22호 제 2권

김영진(한양대),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이주와 송금: 빈곤축소와 경제발전에 대한 영향’ 논문

김상철(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러시아의 외국인 노동자고용과 키르기스인 러시아 노동이주’ 전문가 칼럼\_20130214

강명구 (산업은행 조사분석부 연구위원), ‘키르기스스탄 노동자의 해외이주 원인, 귀국, 그리고 득과 失’ 주간이슈 분석\_20130903

IOM 국제이주기구, ‘6개 송출국가 노동이주 관리체계 및 운영 조사보고서: 방글라데시, 이란, 카자흐스탄, 미얀마, 네팔, 우크라이나’ 2006

전재훈, ‘러시아로의 노동이주 현상과 이주문제 해결방안 모색’ 논문

Andrey Vaganov, “Migrants Revenge”, Nezavisimaya gazeta, October 25, 2006

“Gastarbaiters Will not have Jobs in 2009?”, Pervouralska.net, January 5, 2009